

가격 폭락에 사라지는 염전 전남 천일염산업 몰락의 길

소금값 6년새 5분의 1 토막
20kg 한가마 2000원대로
신안·영광 폐염전 신청 쇄도
정부 비축염 구매 늘려야



염전이 사라지고 있다. 천일염 가격이 폭락하면서 6년 연속 천일염 가격이 떨어지면서 20kg들이 한가마의 가격이 담배 한갑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생산자들은 수익성이 없는 염전 사업을 접고 태양광발전이나 양식장으로 바꾸고 있다. <관련기사 3면>

5일 신안군과 대한염업조합에 따르면 울머 신안지역에서 폐염전을 신청한 업체가 19곳, 65만9747㎡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22건 60만5718㎡였다. 1년6개월 사이에 염전 41곳이 사라진 것이다. 앞서 2014년에는 폐염전 신청이 1곳도 없었고, 2015년에는 2건에 불과했다.

영광지역에서도 울머 2곳(7만9902㎡)이 폐전을 신청했다. 영광의 대표적 염전인 A염전도 폐전을 신청했다가 지자체의 설득으로 최근 거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폐염전 신청이 늘고 있는 것은 염전에서 생산하는 천일염 가격이 6년째 곤두박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수요가 폭등했던 2011년 20kg들이 천일염 1포의 평균가격은 1만1222원이었다. 2012년엔 1만6044원으로 1만 원선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3년 6829원으로 35.6%(3775원) 폭락하더니 2014년 5926원, 2015년 4766원, 지난해 3200원, 울머가 2477원으로 떨어졌다. 6년전 대비 22%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생산원가가 6000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판매가격이 절반에도 못미쳐 소금을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셈이다.

신안군 비금면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소재육 씨는 “소금 한 가마에 2500원으로, 담배 한갑 값만 못하다”며 “최하

4000원은 돼야 손해를 보더라도 버틸테데 한 숨만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가격 폭락은 생산량 과잉에다 저염식 문화 확산에 따른 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발생했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은 2010년을 기점으로 40% 가량 늘었다. 천일염이 2008년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되자 정부가 당시 생산 증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염전 시설 개선을 권장한 때문이다.

특히 올해 가뭄으로 소금 풍년이 든 것도 천일염 생산자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이른 더위와 비가 오지 않는 날씨 탓에 소금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넘게 증가했다. 반면 알갱이는 작아지고 짠맛이 강해져 품질은 떨어졌다.

양광 대한염업조합 이사장은 “염전시설 개선으로 생산량이 40%가량 늘었다. 정부가 과잉생산을 부추긴 셈이다”면서 “임시방편이지만 정부가 비축염 구매량을 늘려 천일염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와 염업조합, 천일염 생산자들은 7일 ‘천일염 가격 하락 대책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 뒤 해양수산부에 천일염산업 안정화 대책을 건의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역 ~ 송정역 셔틀열차 어찌할꼬

市 “이용객 적다” 지원 철회
시의회에 예산 삭감 요청
일부 의원 반대 통과 안돼

광주시가 광주역 활성화를 위해 북구 광주역과 광산구 송정역을 오가는 셔틀열차를 지원한 사업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산낭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고속철 개통에서 소외된 광주역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하루 이용객이 기대에 턱없이 못미치자 광주시 스스로 사업을 철회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광주시의 뒤늦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대로 지원하라”며 “지역구 눈치보기”에 급급

해 광주시는 뻔히 예산이 잘못 쓰이는 줄 알면서도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알곳은 처지에 놓였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가 광주송정역 ~ 광주역 셔틀열차 운행 추정안 5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해 심의했다. 광주시는 전체 12억원, 한 달 평균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편당 탑승자 평균 10.56명에 그쳐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다. 이 열차는 왕복 30회 운행되며, 하루 전체 탑승객도 300명가량에 그쳤다.

이에 광주시는 시의회 상임위에 이 같은 추정안 삭감을 요구했지만 북구지역에 선거구를 둔 일부 의원의 반대로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삭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을 연말

까지 계속 예산 지원을 해 보고 다시 결정하자”는 상임위의 결정이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 스스로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지만 일부 시의원의 요구 탓에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 셔틀열차 문제는 개통 초기부터 불거졌다. 지난 2016년 12월 첫 운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승객이 늘지 않았고, 급기야 1년도 되지 않아 광주시가 예산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광주시의회 주경님(서구 제4선거구) 의원은 “연간 운행원가가 45억원에 이르고 시 재정으로 12억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으로 자칫 밀려진 독에 물뚱기 사업이 되지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5일 오전 동해안에서 열린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타격훈련에서 한국군 탄도미사일 현무-2A(왼쪽)와 주한미군 에이태킴스(ATACMS)가 동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北도발, 성명으로 대응할 상황 아니다” 文대통령, 한·미 미사일 무력시위 지시

G20 참석 베를린 도착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에 대해 무력시위로 대응했다.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을 지시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우리가 성명서로만 대응할 상황도 아니며, 우리의 확고한 미사일 연합대응태세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5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도발 이후 정외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했다. 이에 정 안보실장은 4일 오후 9시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통화했고,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공감한다”며 미사일 발사 계획에 전격 동의했다고 운영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미사일 부대는 이날 오전 7시 동해안에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을 했다. 이날 사격에는 한국군의 현무-Ⅱ와 미 8군의 ATACMS 지대지미사일이 동원됐으며, 목표물을 초탄 명중시켜 유사시 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연합 무력시위는 한국이 제안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한·미 정상회담에서 천명했듯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5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베를린에 도착, 4박6일간의 독일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5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한다. 또 방독 이틀째

인 6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오후 12시40분 코르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 저녁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 만찬회담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과 ‘상호연계된 세계구축’이라는 주제로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회의 기간 7일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리나오는 건강한 피부 윤기. 치유침 없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율단™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레그스킨스토퍼 및 전곡 백화점, 아모레 키오스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레그스킨스토퍼: 02-541-9270 •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